관계부처 합동	보 도 자 료	희망의 새시대

2013. 12. 3(화) 14:00 이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담당부서				
총괄	산업통상자원부	창의산업정책과	과장 조영신, 서기관 박종학 (02-2110-4581, 4580)
편리		에너지수요관리정책과	과장 이상훈, 서기관 권덕중 (02-2110-4872, 4875)
안전	안전행정부	안전정책과	과장 김광용, 사무관 지용구 (02-2100-2967, 3667)
건강	보건복지부	보건의료기술개발과	과장 홍정기, 사무관 김한숙 (02-2023-7610, 7595)
문화	문화체육관광부	문화산업정책과	과장 황준석, 사무관 김고현 (02-3704-9611, 9693)

「4대 국민생활분야(안전, 건강, 편리, 문화) 융합 新산업 시장 활성화 전략」 추진

① **(안전) u-안심생활 서비스 활성화** : 수요자 연령·유형별로 '**공공부문 u-안심 서비스의 통합·연계**' 추진 및 **민간주도형으로 공공부문 사업체계**를 개편

② **(건강) 유전체기반 헬스케어 新산업 창출** : '21년까지 **10만 한국인 유전체 자원** 확보 및 공유·활용, **14대 질환군별 유전체기반 맞춤의료 가이드라인** 마련

③ **(편리) 스마트 홈에너지관리 서비스** : **스마트플러그 사용제품에 에너지효율 1등급** 부여, 스마트플러그기반 **원격 클라우드서비스 시스템 구축** 및 활용 지원

④ **(문화) 문화예술 체험형 콘텐츠 비즈니스 창출** : '20년까지 k-pop 테마파크, 도심형 테마파크 등 **첨단 디지털 체험·공연장 60개** 조성

□ 정부는 12.3(화)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「**안전, 건강 등 4대 국민생활분야 융합 신산업 시장 활성화 전략**」을 확정·발표하였음

○ 동 전략은 2012년 8월 마련한 「**제1차 산업융합발전 기본계획**('13년-'17년)」과 창조경제 국정과제인 「**IT·SW융합을 통한 산업고도화 전략**」을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것으로서,

○ 국민 생활과 밀접한 안전, 건강, 편리, 문화분야의 **대표적 유망 비즈니스모델을 발굴**하고 민간의 시장창출과 활성화 지원을 위한 **관계부처 합동의 협업전략**을 마련한 것임

새로운 환경 변화와 우리의 대응

□ 최근 저출산, 고령화 확산으로 **건강한 수명관리, 아동·독거노인 안정** 등이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고 헬스케어, 키즈산업 수요 증대

○ 또한 소득증대와 함께 개인의 가치충족, 삶의 질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**스마트 생활, 웰빙·여가** 등에 대한 수요도 지속 확대

□ 이러한 사회적 욕구는 **IT·BT 기술, 인프라와 결합**되면서 **새로운 제품과 서비스 시장을 촉발**하고 있으며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

○ 특히 우리의 강점인 ICT 기술과 인프라를 활용하여 **제조단말, 서비스, 콘텐츠 등이 융합**되는 **新제품·서비스 시장선점** 가능

◈ 안전, 건강 등 **국민 삶의 질 개선에 기여**하고 **새로운 미래 수요에 대응한 창조경제 구현**을 위해

◈ **4대 국민생활 분야**의 **융합新산업 시장 활성화 전략**을 추진 필요

4대 융합新산업 비즈니스모델 발굴 및 선정

□ 정부는 4대 국민생활 분야의 **유망 비즈니스모델 발굴**을 위해

○ 지난 4월 기업, 전문가 100여명으로 구성된 「**산업융합 포럼**」을 활용하여 **총 40여개의 후보모델**을 도출하였음

□ 또한 4대 분야에 **우선 추진할 대표 비즈니스모델 선정**을 위해

○ 관계부처 협의,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**민간시장의 확산 가능성, 우리의 기술·인프라 역량, 정부의 역할 필요성**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,

○ 이를 통해 ① (안전) **u-안심생활 서비스 활성화**, ② (건강) **유전체 기반의 헬스케어 新산업 창출**, ③ (편리) **스마트 홈에너지 관리 서비스 확산**, ④ (문화) **문화예술 체험형 콘텐츠 비즈니스 창출**을 4대분야 대표 비즈니스모델로 선정하였음

□ 아울러 정부는 향후 시장여건 등을 감안하여 **4대 국민생활 분야의 유망 비즈니스모델**을 **지속 발굴하고 시장 활성화 전략을 마련**해 나갈 계획

4대 융합 新산업 시장 활성화 전략

1 [안전] u-안심생활 서비스 활성화

〈 대표 융합新산업 비즈니스 모델 〉

◈ **휴대폰, 전용단말기 등을 통해** 어린이, 노약자 등의 **실시간 위치를 보호자에게 제공**하고, 위급상황 시 **긴급 호출 서비스** 제공

⇨ u-안심 서비스 활성화를 통해 **국민의 안심생활 욕구에 부응**하고, 민간의 다양한 **u-안심서비스 비즈니스 창출 및 확산**



☞ 국내 A社의 u-안심생활 서비스를 받고 있는 독거노인 K씨는 고혈압으로 쓰러졌으나, 주택 내 설치된 센서가 생체정보를 감지하여 긴급출동을 자동 요청함으로써 응급구조대가 신속히 현장에 도착하여 병원으로 후송, 진료

① 관련 현황 및 문제점

☐ 그동안 정부부처와 지자체는 국민의 안전 확보를 위해 어린이 안심서비스, 독거노인 응급구호 등 **다양한 공공 u-안심서비스**를 시행

* 국민안심서비스(안행부), 안심알리미서비스(교육부), 치매환자안심서비스(복지부) 등

○ 하지만 각 부처·지자체의 **서비스간 호환성 부족** 등으로 **시스템 중복투자**를 초래하고 **이용자의 불편 문제**가 발생

☐ 특히, 그간 u-안심서비스가 **공공주도로 저가·무료로 보급**되면서,

○ 민간기업은 **자체 상용 서비스시장이 오히려 위축**되고 **공공발주 低수익 사업의 용역, 하청**에 의존하면서 시장 활성화가 지연

② 비즈니스 창출 전략

☐ 정부는 기존 부처 지자체 u-안심서비스간의 호환성 확보를 위해 주요 수요자 유형별로 **공공부문 u-안심서비스를 통합 운영**키로 함

○ 이를 위해 '14년 상반기중 관계부처, 지자체와 기업 등이 참여하는 **'u-안심서비스 정책협의체'**를 구성하고 **'공공 u-안심서비스 통합 연계방안'을 구체화해 나갈 계획**

* 例) 아동·학생, 독거노인·치매환자 등 수요자 유형별로 서비스 모델 등 통합

☐ 또한 **민간 서비스시장 활성화**를 위해 **공공부문 사업추진체계도 대폭 개편**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힘

○ 기존에 정부·지자체가 u-안심서비스 모델(서비스 내용, 이용요금 등)을 직접 기획·설계, 보급하던 방식에서 탈피,

- **민간 기업이 자율적*으로 보급**하도록 하되 정부 지자체는 **저소득 가구 등에 대해 서비스 이용요금 등을 지원**하는 형태로 전환

* 정부·지자체는 수요자 유형별 기본적 서비스사양만을 제시

○ 또한 안심 단말기도 수요자 활용성과 선호도를 고려하여 **알뜰폰에 안심기능을 탑재**하거나 **전자팔찌 등 수요자 맞춤형 단말기**로 전환해 나갈 계획

☐ 정부는 기존 u-안심서비스의 보급 현황과 시장 여건 등을 감안하여 **공공부문 서비스의 통합모델과 사업체계 개편 방안**을 **'15년부터 단계적으로 확대 적용**해 나갈 계획임

☐ 아울러 양질의 u-안심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**고정밀 측위기술, 위험상황 판단기술** 등 **핵심 요소기술의 조기 확보**를 위해서

○ '14년 상반기중 유관 연구기관, 민간기업 등으로 **'u-안심서비스 R&D 협의체'**를 구성 운영할 계획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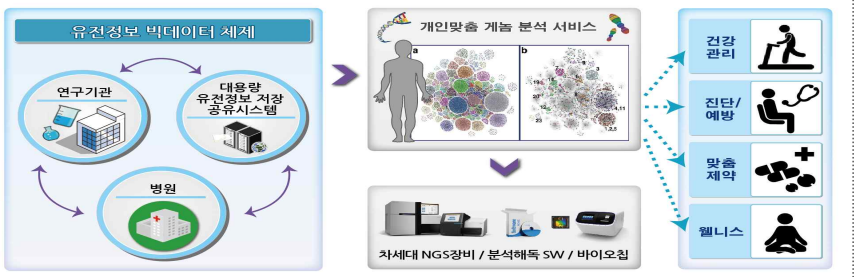
☐ 또한 민간의 공공정보 활용 촉진을 위해 '공간정보 오픈플랫폼(V-World)'을 통해 '14년까지 **공간정보 14종을 추가 개방**(현재 22종 개방)하고 **V-World 활용 소셜맵**을 구축 운영키로 함

2 [건강] 유전체 기반의 헬스케어 新산업 창출

〈 대표 융합新산업 비즈니스 모델 〉

◈ 한국인의 유전적 특성에 맞는 「**유전정보 빅데이터 체제**」를 구축

○ 이를 기반으로 개인 유전정보를 통해 **질병을 예측·예방**하고 개인 맞춤의 **약물처방, 식이·운동 등 건강생활관리서비스** 제공



☞ 직장인 A씨는 유전체 분석서비스를 통해 10년 후 대장암이 발병할 수 있다는 분석 결과를 통보받고, 이를 예방할 수 있는 식이·운동요법을 처방받아 일상에서 자신에게 맞는 건강생활 관리 및 예방 약물치료 등 진행

◈ **개인 유전체 분석·해독 컨설팅, 맞춤 의료·제약**, 개인 맞춤의 **u-헬스케어·웰니스** 등 유전체 기반의 新비즈니스 창출 기대

① 주요 현황 및 문제점

□ 최근 유전체해독 기술 발달로 **유전체기반 新산업의 비약적 성장** 전망

* 게놈분석 : ('90) 30억불, 15년 소요 → ('13) 1천불, 1일 ("개인 맞춤형 게놈 치료시대")

○ 이에 대응, 유전체 新산업의 주도를 위해 **한국인 유전체자원 빅데이터체제** 구축, **다부처 유전체사업**('13년 예타) 등 전개 중

□ 하지만 **부처간 시스템 연계**, 한국인 **유전체자원의 확보 및 공유·활용(공개) 인프라 등의 미흡**으로 기업의 유전체서비스 창출에 애로

○ 또한, **차세대 NGS**(염기서열 분석장비), **분석 SW툴** 등 핵심기술과 유전체기반의 **질병 예측, 진단·치료 기술역량**도 아직 취약

② 비즈니스 창출 전략

□ 정부는 공공기관이 생산, 보유하고 있는 **유전체 자원의 공유와 활용 촉진**을 위해, 공공보유 유전체자원, 정부사업 연구결과물 등에 대해 **각 소관부처로 제출을 의무화**하고,

○ 각 관계부처별 유전체자원 보유, 활용 현황 등을 **'국가 생명연구자원 정보센터(KOBIC)'에서 중점 관리**토록 강화한다고 밝힘

* 「생명연구자원 확보·관리 및 활용 법」 및 부처별 유관법령 등 정비('14)

□ 특히 **'21년까지 총 10만명 한국인 유전체자원**(유전체 분석정보 포함)**을 확보**키로 하고,

○ 현재 보유하고 있는 **약 60만개의 인체 유래물 자원**을 포함하여 한국인 유전체자원을 **민간 기업과 연구소에 단계적으로 분양, 제공**해 나갈 계획임

○ 또한 암, 만성질환 등 **14대 주요 질환군별로 한국인의 유전적 특징에 따른 질병예측, 최적 치료법**을 개발하고 유전체기반의 **한국인 맞춤의료 가이드라인**을 마련키로 함

* 주요 질환별, 유전체 유형별 임상시험 지원 시범사업 추진('14)

□ 아울러 유전체 분야 핵심기술 역량 제고를 위해 한국인 게놈표준지도를 기반으로 **유전체 자동 분석, 해독 SW 개발을 집중 지원**하고,

○ **차세대 NGS**(염기서열 시퀀싱 장비) **장비의 국산화**를 위해 '14년 예타 사업으로 **'차세대 NGS 대형 R&D과제'**를 기획 추진할 계획

□ 민간 유전체서비스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, 개인이 자신의 **유전체형**(type) **분석정보**를 **저장 관리하고 병원진료 등에 활용**할 수 있도록 **'유전체정보 온라인포탈시스템'을 구축** 운영할 계획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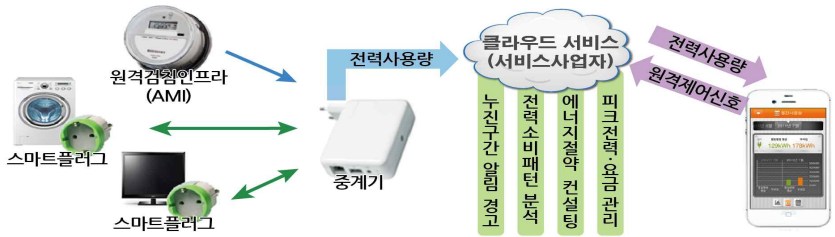
○ 또한 유전체서비스업체, 제약사, 병원, IT기업 등이 함께 모여 다양한 시장창출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**'유전체 산업포럼'**도 발족키로 함

3 (편리) 스마트 홈 에너지관리 서비스 확산

〈 대표 융합新산업 비즈니스 모델 〉

◈ 국가 전력수요관리 체계(전력수급, 전력시장 등)와 연동되는 **ICT·모바일 기반**의 **원격 홈에너지관리 시스템** 구축

○ 자신의 홈 **가전제품의 전력사용량을 원격 모니터링**하고 피크전력, 누진요금(예측) 등에 따라 **전력사용을 실시간 최적관리** 가능



▸ 가정주부 A씨는 매달 증가하는 전기료가 부담되었는데, 스마트 플러그를 설치 후 원격제어를 통해 낭비되는 전력을 줄이고, 가정 내 설치된 중계기와 클라우드 서비스를 연계하여 전력소비패턴을 분석함으로써 전기요금을 탄력적으로 관리

◈ **스마트플러그, 스마트가전** 시장을 확대하고 스마트홈 기반의 **에너지절약 컨설팅, 피크전력·요금 관리** 등 新비즈니스 시장 창출

① 주요 현황 및 문제점

□ 전력수요관리 확산을 위해 각 **가전제품의 전력사용을 원격 제어·관리**할 수 있는 **'스마트 플러그*'를 개발**(제주 실증사업, '10-'13)

* (스마트플러그) 가전제품 미사용시 자동 또는 수동으로 전원을 차단하고 소비전력을 보여주는 기능을 가진 가전제품 전원부에 탈부착 가능한 플러그

□ 하지만 ICT 시스템과의 **상호 운용·호환성 부족**, 후속 **활용서비스 모델 부재** 등으로 **본격적 사업화 단계 진입**에 어려움

○ 특히 **공공전력시스템과 민간서비스의 연계 부족** 등으로 실질적 전력절감 효과 제고 및 소비자 니즈(요금절감 등) 충족에 한계

* 민간은 가전제품·기기의 **단순 상태확인·제어(on-off)** 수준의 원격서비스 제공

② 비즈니스 창출 전략

□ 정부는 스마트플러그 시장창출 지원을 위해, 제조사에 상관없이 동일한 서비스 이용이 가능토록 **스마트플러그 표준화 기술기준**을 조기 정비하는 한편,

○ 중소 스마트플러그 제조업체가 초기 성장기반을 확보할 수 있도록 **에너지효율 인증마크 부여, 중소기업 적합업종 선정** 등 지원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해 나갈 계획

□ 또한 스마트폰, 인터넷을 통해 **원격으로 각 가전제품의 전력제어 서비스**가 가능토록 **스마트플러그와 연계되는 '클라우드 서비스 시스템'**을 구축한다고 밝힘

○ 이를 위해 '14년중에 전력사용량 빅데이터를 활용한 **원격 전력제어 서비스모델**을 개발하고, 스마트플러그 기반의 **공용 서비스 웹·어플**도 개발 보급키로 함

□ 또한 민간 서비스업체가 클라우드 서비스시스템과 연계하여 **다양한 전력수요관리 서비스를 창출**할 수 있도록

○ **개방형 소프트웨어 플랫폼**(Open API)을 개발 공개하는 한편, 서비스 업체 등에 **클라우드 이용권한을 제공**키로 함

○ 또한 수요관리사업자가 **원격에서 각 가정의 전원·대기전력 제어** 등을 통해 발생하는 **전력수요 감축량을 전력시장에 중계, 판매**할 수 있도록 전기사업법 등 유관법령도 정비해 나갈 계획

□ 금번 **스마트 홈에너지관리 서비스가 제공**될 경우,

○ 각 가정에서는 언제 어디서나 자신의 집에 있는 **각 가전제품의 전력사용량을 실시간으로 확인**하고 스마트폰을 통해 **원격으로 제어(on-off)**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,

○ **실시간 전기요금 예측, 누진요금 구간 알림** 등을 통해 자신의 **전력요금을 최적으로 관리**하고 필요할 경우 **전력수급 비상상황 극복 등에도 동참**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

4 [문화] 교육·문화예술 체험형 콘텐츠 비즈니스 창출

〈 대표 융합新산업 비즈니스 모델 〉

◈ 3D·홀로그램 기반의 **디지털 테마파크(체험·공연장)**를 확산하고,

○ 이를 통해 **첨단 융합콘텐츠 산업**, 3D·홀로그램 **무대장치·부품 제조업의 新시장 창출 및 선순환 생태계** 조성

▸(**자연다규멘터리 체험**) 우주·바다체험, 공룡이야기 등을 3D·홀로그램化(돔·원형 스크린)하고 어린이 등이 인터렉티브하게 실감할 수 있는 공간 활성화

▸(**한류·영화 테마파크**) 주요 문화·관광단지 등에 3D·홀로그램 기반의 k-pop 공연 전용의 '디지털 테마파크'를 조성, 한류문화 홍보 및 관광객 유치



① 주요 현황 및 문제점

☐ 첨단 문화생활 수요 증가에 따라 **3D·홀로그램 콘텐츠** 개발 및 **'k-pop 테마파크'** 조성('13.7월) 등 **新시장 창출** 노력 전개

☐ 하지만, 국내 콘텐츠산업은 **상설 비즈니스 공간부족**으로 3D·홀로그램 등 **체험형 융합콘텐츠 산업의 성장** 한계

○ **전시장 등 1회성 행사를 중심**으로 체험형 융합콘텐츠가 제작·활용되면서 **용역·하청 사업 중심의 영세한 수익구조** 지속

○ 또한, 고부가가치 **융합콘텐츠 분야 기획·창작 역량**도 미흡하고 **홀로그램 구현설비 및 무대장치 등은 거의 해외 수입 의존**

② 비즈니스 창출 전략

☐ 체험형 융합콘텐츠 분야 실감영상, 인터렉션, 무대장치 등 **3대 핵심 기술의 고도화**를 위해 관계부처 합동의 **'첨단융합콘텐츠 공동사업 협의회'**를 구성('14.상) 운영할 계획

* (**실감영상**) 홀로그램 및 UHD 영상콘텐츠, CG, 특수효과(VFX) 등, (**인터랙션**) 고정밀 동작인식·감성인식, 햅틱기술, (**무대장치**) 가상체험 시뮬레이터, 무대 자동화 등

☐ 또한 전통문화, 영화·k-pop, 다큐멘터리 등과 3D·홀로그램이 결합되는 **'체험형 융합콘텐츠' 기획 창작 역량** 강화를 위해

○ 융합콘텐츠의 창조와 융합 공간인 **'콘텐츠코리아 랩'을 '17년까지 23개소 조성**하고,

○ 업계 수요가 큰 주요 문화원형 데이터, 다큐멘터리 등 관련 핵심 아이템에 대해 **UHD 3D이미지 정보를 생산 공개**해 나갈 계획임

* 공공정보 데이터의 오픈 API 개발 및 종합 문화정보 공개·활용체계 구축

☐ 특히 정부는 첨단 융합콘텐츠 시장 창출을 위해서, **'20년까지 첨단 디지털 체험·공연장 60개소를 조성**할 계획임

○ 이를 위해 **주요 박물관·미술관, 공공체육시설** 등에 다양한 체험형 융합콘텐츠를 시범 검증할 수 있는 **상설 체험공간을 구축**하는 한편,

○ 민간기업의 **'디지털 테마파크**(예: K-pop 테마파크)', **'도심형 테마파크**(3D·홀로그램 기반의 디지털 키즈룸 등)' **사업화 촉진**을 위해서도 문화콘텐츠 분야 펀드 등을 활용하여 투·융자 지원키로 함

* 모태펀드 등을 통한 문화콘텐츠 분야 재원('17년까지 5,000억원) 및 차세대 동반성장 사업기업 출자('17년까지 2,800억원)를 통해 재원 조성

☐ 아울러 체험형 융합콘텐츠 업계의 해외진출 지원을 위해서

○ 해외 한국문화원, 세종학당 등 현지 인프라를 활용하여 **k-pop·한류 체험관 등 해외홍보 거점을 구축**키로 하고,

○ **한·중 '펑요우 콘텐츠 프로젝트'** 등과 연계하여 중국, 동남아 등 **신흥 문화콘텐츠 시장**에 대한 **업계의 해외진출을 집중 지원**할 계획

향후 계획 및 추진 체계

□ 정부는 금번 「**4대분야 융합新산업 시장 활성화 전략**」의 **차질없는 이행**을 위해서,

○ 민·관 공동단장으로 하고 관계부처 공무원과 주요 기업·전문가가 함께 참여하는 「**4대 융합 정책추진단**」을 구성하고,

* 공동단장(산업부 1급, 민간단장), 관계부처 과장급이상 및 4大분야 기업·전문가 등

○ 반기별로 세부 추진과제 이행상황과 향후계획 등을 지속 점검해 나갈 계획임

□ 또한 산업융합 포럼을 확대 개편하고 민간 기업 전문가의 창의적 아이디어를 기반으로 **4대 국민생활 분야의 융합신산업 비즈니스 모델을 지속 발굴**해 나가겠다고 밝힘

☞ 「산업융합 포럼('13.4월 발족)」 : 현재 헬스케어, 스마트 안전·수송 3개 분과 운영
→ 건강, 안전, 편리, 문화 등 4大 융합분야 분과로 확대 개편

OPEN
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
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산업통상자원부 창의산업정책과 박종학 서기관(☎ 02-2110-4580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